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날씨 행복한 해님



<아파트 분리수거 현장, 꼼꼼히 살펴보니...>

오늘 환경 동아리 활동으로 아파트 분리수거 현장에 나갔다. 분류되어 나온 분리수거 현장으로 가서 분리수거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가 제대로 분류되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깨끗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리 선생님께서 분리되어 있지만 재활용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플라스틱류는 더러운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셨다. 그래서 집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기사들을 살펴보니 우리나라는 분리수거율은 세계 최고지만, 재활용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아 놀랐다.

이런듯 우리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서 슬펐다. 앞으로는 올바른 분리수거를 더욱 신경 쓰고, 재활용 과정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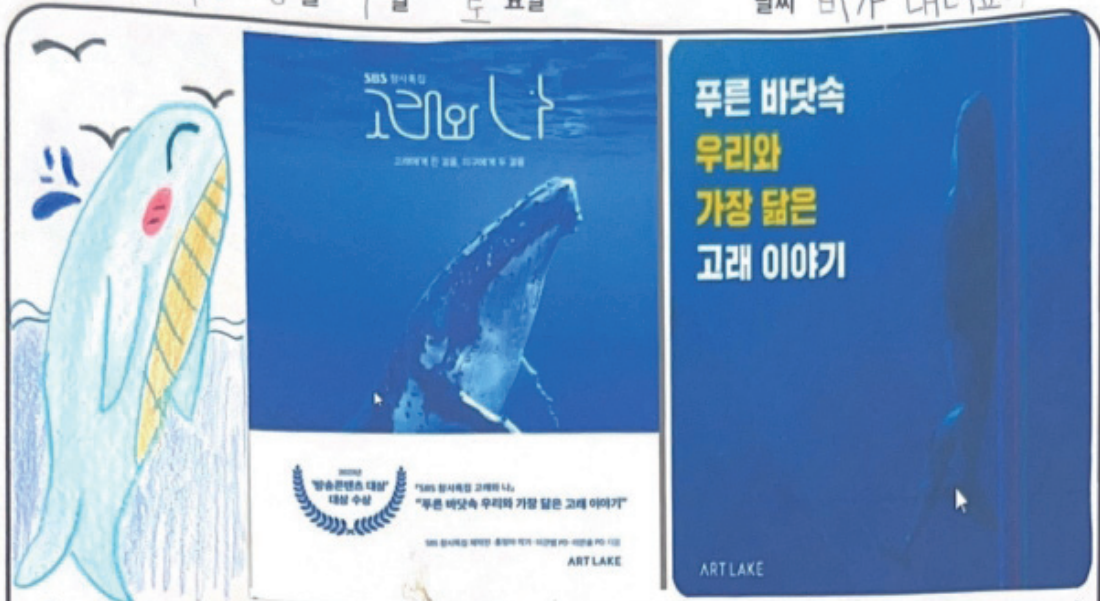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거야!”






2024년 6월 1일 토요일

날씨 비가 내려요



<고래야, 고마워! 네 덕분에 지구가 살아♡>

오늘은 도서관에 가서 '고래와 나'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고래가 탄소중립에 얼마나 큰 역할 하는지 알려 준다! 고래 한 마리가 무려 33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니 대단하다. 

고래가 없었다면 지구 온난화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 소중한 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나는 책을 읽은 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에 사는 모든 생물체들이 사실 지구를 지키는 역할이 다 있는 건 아닐까? 우리도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쓰레기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등... 나부터 노력해야겠어!





2024년 6월 9일 일요일

날씨 흐리다 해가 갸름



<자자잔! 내 손으로 만든 탄소중립>

오늘은 친구들과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를 얻기 위해 페트병 모으기에 나섰다. 물론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지만, 지구를 위해 하는 일이라 기뻐했다. 일단 먼저 버려진 페트병을 줍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라벨까지 떼주면 끝! 처음엔 친구들이 투덜거리고 힘들다고 했지만, 페트병을 깨끗하게 씻고 나니 뿌듯해 하는 것 같다. ^{귀찮은데 2차} 왜 하시는거야 ^{진짜..} ^{뿌듯} 드디어 페트병을 가득 채운 가방을 들고 네프론에 가져갔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도 받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지~!





김나현 초등학교 6학년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날씨 기분 좋게 맑음



<갭천에서 만날까? 수달! 그리고 우리의 약속!>

오늘은 엄마랑 갭천 하류 자전거 길을 따라 신나게 달렸다. 시원한 바람 맞으며 푸른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다. 그런데 자전거 타다가 갭천 하류에 멸종위기동물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게 떠올랐다. 전에 대전환경운동연합기사에 봤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에게 갭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엄마도 놀라시며 깨끗하게 갭천을 이용해야 겠다고 말씀하셨다.

엄마와 나는 수달을 보호하자는 생각에 그날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작은 캠페인을 벌였다. 나는 체인지 메이커거든!!! 플래카드를 보신 분들이 모두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음에 갭천에 자전거를 타러갈때 수달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수달이 건강하게 갭천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어!





2024년 7월 3일 수요일

날씨 비가 주룩주룩



<우리 집 특별한 '한 접시' 식탁>

요즘 우리 집에 특별한 '한 접시 식탁'이 열린다. 예전에는 밥과 반찬 따로 담아 먹었는데, 요즘은 엄마가 "한 접시에 밥과 반찬을 다 담아먹는 '한 접시 식탁'을 해보자!"고 제안하신 이후 실천하는 가족이다.

처음에는 밥과 반찬을 한 접시에 다 담으려니 양이 너무 많아 걱정이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딱 맞게 먹을 수 있게 담았다. 나는 남김없이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한 접시에 다 담아 먹으니 양 조절이 쉬워서 좋고, 덕분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었다. 아싸~!!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환경도 생각하는 '한 접시 식탁'을 계속 실천해 낼 것이다.

우리가족 만세!!!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날씨 흐리다 많음



<우리 아파트, 탄소중립 녹색 아파트로 거듭나다!>

오늘은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가지고 대회준비 활동을 했다. 탄소중립 녹색 아파트를 꿈꾸며 벌인 통계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엄청 놀라웠다. 분리수거 현장조사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잘 하지만, 재활용품은 생각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리수거는 잘 되었지만, 실제로 재활용품은 훨씬 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올바른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우리팀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가 묻어있는 채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아파트, 탄소중립 녹색 아파트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아파트 게시판에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포스터를 붙이고,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도 해드렸다. 캠페인 전후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재활용품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의 노력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다.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탄소중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앞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다.





2024년 7월 21일 일요일

날씨 비

〈분리수거 혁신을 위한 우리의 발명!〉

오늘은 환경동아리 친구들과 만났다. 분리수거 현장 봉사활동 갔을 때의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

날씨도 너무 더웠는데, 냄새도 심했던 기억이 난다.

이 분리수거 현장에서 올바른 분리수거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플라스틱이었고, 거기에 붙어있는 음식물 제거를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갑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나는 천재가 분명하다.

나와 내 친구들이 직접 플라스틱에 붙은 음식물을 제거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친구들과 정신없이 서로가 아이디어를 내니, 딱 좋게 만들어졌다.

음식물을 떼어낼 수 있는 강력한 바람과 흡입 장치, 세로형 핸드드라이어처럼 바람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진공청소기처럼 남은 음식물은 보발아들이는 장치까지 붙이면...

카~! 정말 완벽하다! 친구들과 함께 이 발명품을 만들어서 많은 플라스틱이 재활용 되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나현 초등학교 6학년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날씨 흐리다 맑음.

I want to be a change maker because they can com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industries.. That's why I prepared this idea..

This is a quote from Emmanuel Macron the current President of France .

"By polluting the oceans, not mitigating CO2 emissions and destroying our biodiversity, we are killing our planet..

Let's face it, there is no planet B." .

Global Warming is a serious problem. Here are some facts;.

According to NASA, The last 7 years have been the warmest on record..

(The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has found that our extinction rate is currently 1,000 times the natural rate..

That means because of climate change 30 to 50 percent of the total species found on Earth will have disappeared in the next 10 years..

Finally, the United Nation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has stated that Within the next 2 decades, global temperatures are likely to reach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

Governments need to take a creative approach to fighting climate change..

Basically, we have to find a way to take carbon dioxide out of the air since it is the main green house gas..

My idea is that we need to plant more mangrove trees .

A mangrove tree is a Halophyte .

These are salt-tolerant plants that grow in soil or waters of high salinity..

The great thing about mangrove trees is that in addition to preventing erosion, they also are able to store large amounts of carbon in their biomass..

According to the Korea Marine Environment Corporation A mangrove forest planted along a 4.5 square kilometer of coastline can absorb the green house gases of 20 000 passenger cars .

To put it another way..

Fairearthfoundation.org tells us , one mangrove tree removes 308 kg of CO2 from the atmosphere over its growth life .

That means it could removes 12.3 kg per year..



<세상을 바꾸는 나의 꿈: 체인지 메이커 🍀>

기후 변화에 대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국제 학생들도 나오는 큰 대회여서 무엇을 주제를 나갈까? 고민하다가 환경 동아리에서 배운 바다관련 '블루카본',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것 벌이 생각났다. 그래서 갯벌을 살리고 염생식물을 심어 탄소중립을 이루자는 연설을 준비했다. 왜냐하면 내 꿈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거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갯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설 연습도 많이 했지만, 국제 학생만큼 발음이 완벽하지 못해 결국 떨어졌다ㅠㅠ. 관찮아, 너무 실망하지 말자! 국제적인 체인지 메이커가 되려면 앞으로 더 배우고 노력해야겠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환경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야! 갯벌을 지키고, 염생식물을 심어서 기후변화에 막는 일에 앞장서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게 나의 꿈이야!!!

